

초신자 나아만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다 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같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렸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란 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들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아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당쳐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던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개역, 열왕기하 5:1~19]

나 아만을 초신자라고 불러도 되는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되겠다 싶은 느낌이 좀 듭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다시 찬찬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나라에 개국 공신이기도 하고 임금 다음으로 실권을 가지고 있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문둥병을 깨끗이 고쳤습니다. 지금은 '문둥병'이라고 하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은 표현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문둥병'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한센씨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준말로 하면 문둥이지만 우리 어릴 때 만해도 '문둥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잘 없었고 주로 '무운디'라고 그랬죠. 사실 그 말 들으면 좀 무서웠습니다. 어두워졌는데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놀면 문디가 와서는 애들 잡아서 간 빼먹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참 으시시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만해도 치료가 잘 안되는 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이 발하면 바로 소록도로 보내지는 슬픈 얘기를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좌우간 그 흉칙함 때문에 천형이라고 불리면서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시절에 이 병이 고쳐졌다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은 이후에 이 나아만과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다짐했으나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나아만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요직에 있는 신앙인들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근래에 너무 많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지만 그것

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장을 돌로 나누어서 앞부분 나아만에 관한 얘기는 오늘 하고요, 조금 남은 뒷부분은 주일 저녁에 계속 할 생각입니다. 우선 아람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수리아로 불렸던 나라입니다. 늘 이스라엘과 함께 붙어 있으면서 사이가 좋기도 했다가 원수가 되기도 했는데 좋은 시절보다는 서로 싸웠던 시절이 훨씬 더 많았죠. 그 나라에 있었던 장군 나아만은 개국 공신이라고 해야 할만한 장군이었으니 아주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아만을 아람 나라에서 존귀한 분으로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에서 나아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큰 용사였더라'고 다른 하나는 '문둥병자였더라'는 말입니다.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자였더라!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자가 발견이 되면 같이 살지 못합니다. 무조건하고 쫓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끼리만 따로 살아야 했는데 나아만은 문둥병자면서도 그런대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아마 복일런지 모르죠. 문둥병자이지만 아람의 큰 자로서 살았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문둥병자이지만 그래도 나라의 2인자 정도는 한번 해 보는 게 좋을까? 성경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한 자리 할려고 욕심이 끌리기 시작하면 문둥병보다 더 심한 욕도 얻어먹습니다.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대대로 욕을 얻어먹을 짓도 서슴잡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권력, 명예라는 것이 맛을 한번 들이면 헤어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하고는 별 관계없는 건지 모르지만 제발 명예도 좋고 돈도 좋고 다 좋지만 문둥병자라도 장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류의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신앙 다 팔아먹고, 아니면 안 믿는 척 하고라도 뭔가 하나 해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은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좌우간 나아만은 큰 자였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 불쌍하다고 여겨야 되겠죠? 불쌍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불행한 집이죠. 이대로 가면 이 집안은 필연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행한 집안에 어느 날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집안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누구 때문예요?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작은 계집아이' 하면 답은 간단한테 꼭 그 앞에 한 마디 덧붙이세요. 왜냐하면 작은 계집아이가 없는 집은 없었을 테니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은 계집아이. 그것도 작은 계집아이요.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 하나라는 이 말은 아무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말인 것 같죠?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작은 아이 하나. 이 아이로부터 이 집안에 행복이 찾아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전쟁통에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잡혀가서 외국에서 종노릇하고 있었거든요. 이 종노릇하는 아이가 보니까 자기 주인 형편이 참 말이 아니죠. "참 불쌍해라. 우리 선지자 앞에 있다면 고칠 수 있을텐데..."라는 이 말 한마디가 결국 이 집안에 빛을 던져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불쌍한 건지...

제가 하도 어릴 때 들어서 확인을 못 해본 이야기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북구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옛날 유명했던 바이킹족들 있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야만족입니다. 이 야만족이 배를 타고 내려와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 근처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납치해 갔답니다. 주로 여자들을 납치해갔죠. 그때 납치 당해 갔던 여자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분들이 납치 당해서 거기서 살면서 그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 바이킹족들을 결과적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전부 교화시켜 나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잡혀가서 힘든 삶을 살았을런지 모르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히 바꾸어 갔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우리가 늘 잘 먹고 잘 사는 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이 전달되어져 가는 과정

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종노릇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주어졌던 것처럼 이 불행한 아이 하나, 불행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 아이 하나를 통해서 이 큰 자라고 불렸던 나아만의 집에 어찌할 수 없는 불행이 서서히 행복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나를 통해서 나의 이웃, 나의 회사 이런 우리 주변이 복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둡시다. 우리 개인의 욕심 때문에 뭔가를 시도했다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로 인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는 삶도 아주 소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잘하면 고칠 수가 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나아만을 누구에게로 보내야 정상이죠? 선지자에게로 보내는 게 정상일텐데 선지자에게로 안 보내고 어디로 보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걸 좀 이해가 가요. 왜요? 아람 왕이 생각할 때 선지자? 눈에 안 들어옵니다. 선지자라고 해봐야 어차피 왕 밑에 있는 사람일테니까 왕이 시키면 될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왕에게 보내면서 왕을 보고 내 신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말을 듣고나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걸 고치느냐 말이죠. 아마 한동안 좀 평화롭게 지냈더니 무슨 생트집을 잡아서 침략할 구실을 만드는가보다 해서 걱정을 몹시 했죠. 그래서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볼 때는 너무나 엄청난 답답한 상황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보기에는 이걸 어떤 상황이죠? 엘리사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답답한 상황이 아니고 뭐할 상황? 뭐할 기회다?

8절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릴 기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이 일로 인해서 알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왕이 볼 때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세상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투성이인데 엘리사가 볼 때는 아하! 이 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겠다는 것은 말을 조금 바꾸면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예.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안옵니까? IMF가 닥칠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IMF 들이닥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와요?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뭘까요? 똑같은 사실을 두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 아람 왕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보낸 걸 두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왕이 보는 눈과 엘리사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왕이 볼 때는 이것 참 골치덩어리가 왔는데 엘리사가 볼 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인 거죠. 똑같은 사실을 두고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바로 이런 차이 때문입니다.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서 어떡하나?” 걱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그래요? 잘 모르시나요? 더군다나 요즘 새벽기도 때 읊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느닷없이 불행이 닥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또 무슨 복을 주실려고 이러나? (황미련 집사)

그렇습니다. 훌륭한 대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이런 걸 쳐다보면서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려고 이러나?라고 생각하는 자체로 이미 이 고통이 그렇게 큰 고통으로 안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우니까 겁이 날까요? 겁이 나니까 무서울까요? 똑같은 말인가요? 의외로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나보다 덩치가 훨씬 큰 놈이 덤빌려고 그러니까. ‘싸우면 내가 지는데...’ 이라고 있을 때 한방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전혀 안 아파요. 어떨 땐지 아십니까? 싸움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처음에 한 대 맞고 두 대 맞을 때는 아

됩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한 두 대 맞고 끝냈으면 싶은데 세 대 네 대 자꾸 들어옵니다. 억울하게 몇 대 맞다보면 정신이 살짝 나가죠.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덤비면 그때부터는 살이 터져나가도 아픈 줄을 몰라요. 싸워 보신 분은 압니다. 왜 안 아파요? 싸우기 싫어하면서 한 대 두 대 맞을 때는 겁을 내고 있거든요. 그때는 아픕니다. 그런데 이래선 도저히 안되겠다 '니 죽고 내 죽자' 하고 달려들기 시작할 때는 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맞아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런데 맞았다는 걸 언제 압니까? 싸움이 다 끝난 뒤에 보면 온통 멍이 들어서 엉망이죠.

아프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겁을 안 내면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팔자는 어째 이 모양이고?' 이러면 그 팔자는 죽을 때까지 그 모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복 중에 하나가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내게 무슨 복을 주실려고?' 이러면 이미 이걸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한번쯤이라도 경험해 보시라고 자꾸 권합니다. 한번 겪고나면 그게 참 재미있는 일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아예 버릇처럼 되면 닥쳐오는 어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더 열심히 살아보면 살아가는 재미가 더 나게 될 겁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기별했습니다. '나아만을 내게로 보내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이 귀한 손님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쳐 위에,** '당쳐 위에'라는 것은 아픈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픈 곳에 손을 흔들어' 왜 흔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고 왜 그럴까요? 자기 나라에서 늘 하던 버릇이었지요. 그 나라 점쟁이라고 해야 할지 그 나라에 가짜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었겠죠. 나아만이 한 말 중에 가장 나쁜 말이 어느 말일까요? 이 11절에서요. 예를 들면 '노하여', '물러가며' 더 있어요?

가로되 내 생각에는' 이게 제일 나쁜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흔들면서 고쳐줘야 하는 거 아니냐?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그 생각들을 했다가 안됐잖아요. 아람에 있을 때 그런 거 안 해봤겠습니까? 그랬는데 안됐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자기 주장이 맞을 때도 많지만 그것을 잊어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 생각대로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자기가 고치지 왜 여기까지 와요? 일단 안되서 여기 왔으면 누구 생각대로요? 그건 엘리사의 생각대로 맡겨줘야지요. 맡겨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내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 있는데요? 내가 이래도 아람의 제 2인자라는 그런 자부심 아니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교만이라고 하는데 교만은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꼭 차 있으니까 대우를 받고 싶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렇게 할거라고 하는데 왜 하지 않는냐는 애깁니다.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접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의사 앞에 가서 자기 병을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 내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뭐하러 왔어? 니가 알아서 니 마음대로 처리하고 니 마음대로 하지." 의사 앞에 가서 자기 병 자기가 진단하고 무슨 무슨 약 쓰면 안될까요? 그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그저 선생님이 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있어야 그게 유리하지 않아서 이래하면 어떻게 저래하면 어떻게... 더러더러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됩니다.

고집을 버려야 할 때도 있고 자기 생각을 깨끗이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시집 갈려고 하는데 주변 모든 사람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면 잘 될까요? 잘 안될까요? 시집 갈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요. 그래도 뽕뽕 우겨서 가면 잘 될까요? 잘 안될까요?

잘 안되요.

잘 안되요?

잘 되요.

잘 되요? 잘 됐어요? 누가 잘 됐어요? 이 안에 한 분 있다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려도 갔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갔는데 안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남의 말이라면 무조건 안 듣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말리는데도 말 안 듣고 가서 잘된 사람보다 안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가 말리는데도 왜 안 듣고 부득부득 가느냐 할 때의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요? 내 생각만 가지고 남의 말을 전혀 안 들으면 이건 틀림없이 고생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틀림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말을 안 듣고 갔어도 성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은 경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보니까 ‘이거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생각 안 해요. 무슨 생각? 인간적인 계산만 대고. 원래 충고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래서 안된다. 모두가 다 말렸지만 나는 생각해 볼 때 이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라고 믿고 밀어부쳐서 성공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창 고등학교에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거든 가거라. 봉급이 가장 적은 곳으로 가거라. 누가 봉급이 제일 적은 대로 가요? 사람들은 뭘 보고 얘기하느냐?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보는 거죠. 봉급은 제일 적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뜻하심이 거기 있다고 여겨지거든 가라는 뜻입니다.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다 들어 있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거든 가거라. 사람들이 왜 반대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이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게 적합하다 싶으면 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조건 남의 말 안 듣는 것은 잘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 무조건 남의 말 잘 듣는 것. 이것도 잘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거냐 아닌 거냐를 따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아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하고 별 관계가 없죠? 완전히 이건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이 맞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데도 부득부득 우겨서 유명인사가 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바가 뭔가 달랐었다는 점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갔던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든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고집을 부릴 때에 이게 무슨 고집이냐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잔데’ 하는 고집 있죠? 깨끗이 버리십시오. 지금 어느 시대라고 남자라는 구별을 뒹요. 또 뭐가 있죠? 체면요? 깨끗이 버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다 생각이 되면 누가 뭐라 하든 밀고 나가세요. 그런데 그것 아니거든 일단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당신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고집을 꺾기가 어렵겠지만 좌우간 하나님의 뜻부터 먼저 파악하고 그 뜻에 적합하다면 우리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며 자기 주장을 세워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고집을 부리거나 내 생각을 너무 밀어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분해서 그냥 갈려고 할 때에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아주 현명하게 말씀을 잘 드렸죠. “이것보다 더한 일 시켜도 해야 할 판인데 이 정도야 왜 못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아마 이 요단강은 자기들 고향에 있던 아바나나 바르발이라는 강보다 깨끗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거기 가서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니까 나아만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병이 나았다? 그 다음 가능한 나아만의 행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디에 감사를 해야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께요? 강에 가서 씻어서 나왔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야! 이거 요단강 물 참 멋지다’ 이러면서 빨리 사신을 보내서 아람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을 전부 집합시켜서 요단강에 다 집어넣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더 많지 싶은데 나아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선지자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라구요? 그러면 선지자를 찬양해야지요? 야! 선지자 참 용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아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이 요단강 물 때문도 아니고 선지자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만약에 요단강 물 때문이었다면 아마 아람의 문둥병자들을 다 끌고왔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병을 고쳤다는 걸 나아만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고민이 하나 생긴 겁니다. 무슨 고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민이 없어져요? 생겨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행복하다던데 고민이 생겨요? 없어져요?

거룩한 고민...

아니! 무슨 고민에 거룩한 고민이 다 있어요? 거룩한 고민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고민을 주로 했는데요?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룩한 고민이 생겨난답니다. 그 전의 고민은 주로 먹고 사는 거였죠. 주로 그런 고민에 잡혀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런 고민들은 아주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작아져 버리는 거죠. 대신에 어떤 고민이 생기죠? 거룩한 고민은 어떤 거죠? 새벽기도 같거나 말거나? 심방을 같거나 말거나? 그것 좋은 고민이네요. 그런데 그게 무슨 고민이에요? 그냥 가면 되지.

예수 믿게 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필요? 불을 던지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 이 불이 이미 다 붙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지르러 오신 분입니다. 무슨 불요?

성령의 불요.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 경우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과 엄청나게 싸워야 하는 시련이 생길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불지르고 다니시면 안됩니다. 싸우지 않고 현명하게 이끌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없던 고민이 생겨났는데 이 고민은 사람을 살리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고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민은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은 있어야 합니다. 이것조차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민입니다.

나아만에게 생긴 고민이 무엇이였을까요? 자, 병은 나았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해놨는데 고향에 돌아가면 우리 임금님이 섬기는 림몬 신의 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숭배할 때에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인제 이게 고민인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어가요? 나라의 2인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고민한 내용이 18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18절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처럼 그대로 행동을 하겠지만 이것은 나의 본의가 아니고, 내 본심이 아니고 난 정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형편에 의해서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잘못을 용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애기를 하는 거죠. 제가 몸은 굽히고 절은 하겠지만 그것은 저의 본심은 아니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좀 있기는 있죠. 하나님, 이건 제 본심이 아닙니다.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요 하고 설렁설렁 들어가는 일들이 더러더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면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믿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했으니까 허락해준 거예요? 그래 알았다 이런 정도의 뜻입니까? 하나님에게 뭔가를 간절히 부탁을 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가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양보하시는 적이 더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양보를 더러 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쉬운 예가 있는데 왜 하필 아닙니다? 출 32장이나,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려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씀이 있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라는 구절 생각납니까? 유대인들이 이혼할 때는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혼해도 된다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대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하면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도 좋다고 말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을 인함이었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마 19:8, 막 10: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그게 아니면 뭐예요?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당한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을 뿐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래 뜻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잠시 물리고 양보하고 돌이키시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퍼져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에 남기신 말이 뭐예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것 말고 끝에, 그건 야단을 치시는 말씀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너거 마음은 안다. 어쩔 수 없기는 없구나. 이런 정도 이야기죠?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됐으면 벌써 욕이 나와도 몇 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융통성도 없고 그냥 법률같이 딱딱한 분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네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 여유있고 융통성 있는 분이려면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애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괜찮겠는데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기쁨은 못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나아만이 누구죠? 아람의 제 2인자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갔음에도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아람의 제 2인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웃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신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몇 년 사이에 터진 대형 사고들 속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사건이 터졌다 하면 믿는 사람이 꼭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잘못되어 가는 세상을 바로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니까 나아만을 가리켜서 초신자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초신자가 됩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요? 아닙니다. 교회 처음 나왔다고 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1, 2년밖에 안 다녔다고 초신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더라도 믿는 자로서 누려야 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떡해요? 믿기는 하지만 이 맥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초신자가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초신자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죠? 밥을 못 주겠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에게 밥은 못 주겠다. 젖밖에 못 주겠다. 왜? 어린 아이니까요. 어린 아이라서 더 이상 밥은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더라도 하는 게 그렇고, 생각이 그러면 그건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그걸 점잖게 말해서 초신자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저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올 여름 지나니까 말이 조금 트여서 더러더러 말이 좀 되긴 합니다. 이게 머리를 굴리더라구요. 며칠 전에 어디 나갔다가 잠시 기다리는데 배도 고픈 참에 보니까 사탕을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있어요. "야, 승표야 그것 아빠 줘." 하니까 이놈 대답이 걸

작이에요. 말도 잘 못하는 게요 ‘아빠 줘’ 하니까 이놈이 한다는 소리가 ‘캐~엑’ 한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내가 먹으면 캐하고 걸리고 자기가 먹으면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하도 우스워서 까서 썼어요. 아무 소리 안하고 잘 먹더라구요. ‘야 니가 먹으면 괜찮은 게 큰 아빠 먹으면 캐 한다?’ 어째 말 배우기 전부터 저렇게 잔머리부터 먼저 돌아가는지. 그것 누가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탕소리 안 했을건데 누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배도 출출하고... 뭐 없나 하다보니까 세 살배기 손에 사탕하나 먹지도 않고 들고 다니는 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달라고 손내밀었다가 당했거든요. 기분 나빴겠어요? 안 나빴겠어요? 지는 먹으면 괜찮고 큰 아빠 먹으면 캐 한다는 그게 기분 나빴겠어요? 괜찮았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것 기분 나쁘면 어른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고두고 생각해보면 우스워 죽겠어요. 야! 저 어린 녀석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을까? 내가 이걸 아빠한테 안 뺏기기 위해서 이걸 아빠가 먹으면 목이 캐하고 걸리니까 자기가 먹어야 된다. 대단한 생각이죠? 제가 보고 우스워 죽겠고 두고두고 생각해도 우스운 이야긴데 대단한 생각이죠? 정말 어린 아이다운 생각입니다.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말이 돼서 그 사탕이 아빠 입에 안 들어가고 지[자기] 입에 들어갔어요? 아니죠?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아만이 나름대로는 고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옳드리는 것이지 정말 본심은 아닙니다. 그러니 용서해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아만의 생각에는 아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아빠 캐 한다’라는 것하고 차원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초신자의 자리에서, 이런 어린 아이의 차원에서 못 벗어나느냐 하니까 만 날 내 생각대로 열심히 머리 굴려서 야! 이것 정말 내 생각 잘 했다 하는데 그게 자기 수준인 겁니다. 늘 이러니 어린 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생각을 해보고 과감하게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행동으로 부딪쳐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노라면 일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딪치는 사람도 있고 싸움을 싸워야 할 때도 있고 고난을 내가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쉬운 길이고 내가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퍼져나가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나아만이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런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병을 깨끗이 고쳤다고 했으면 나름대로 간증이 되겠죠. 왕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밀고 나가면 목이 잘릴 수도 있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 전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애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나아만은 그러지 않았습시다.

이렇게 살면 나아만은 초신자는 초신잔데 영원한 초신자입니다. 평생토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영원한 초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또 겁고 즐겁고 감격스럽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때우고 ‘또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자꾸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거나 우리의 자세에 변화를 주기 전에는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초신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혹 계시거든 저거 날 두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 드리는 초신자는 시간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야 나온지 얼마되지 않지만 전혀 초신자가 아닌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노라고 고백도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또는 제가 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 말 맞아’, ‘하나님 제가 잠이 많아서 잘 안 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맞어’,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 ‘내 알아’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살 딱 거머쥐고 우리를 붙들어 얹혀 놓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이라도 그러셨나 보세요.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잘 믿는 백성으로, 우상숭배 안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허비하신 것 같아요?

아니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이 그런 걸요. 제가 애들에게 자주 했던 말인데요 “애들아 토요일 저녁에 토요 명화나 무슨 명화 극장이나 그것 좋아하면서 주일 잘 지킨다는 것, 그것 빈말이다. 진짜 주일을 잘 지키겠다고 생각하거든 제일 먼저 토요 명화 그만 봐라. 명화 극장 그만 봐라. 그것 열심히 보면서 주일 잘 지킨다는 그거 빈 말이다.” 가끔 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그건 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거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안다 봐라.” 하나님의 대답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과 함께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절할 때 절하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용서해주세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래 가지고는 평생토록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쯤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나를 방해하는지, 내가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한번쯤은 끊어보세요. 끊고 바꿔보고 나름대로 결단을 내리거나, 그렇게 바꿔보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반드시 힘든 일 아닙니다.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파 일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요즘 교회 좀 와보십시오. 오늘 들어 오시다가 도로 돌아 나가시는 분 없나 모르겠어요. 밤이라서 그런데 낮에 오시면 잘못 왔나 싶어서 나간 분이 아마 생길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워낙 크니까요. 작은 변화 하나에도 손이 얼마나 많이 가요? 그런데 교회를 온통 바꿔놓고 있으니 일하는 분들은 아마 녹초가 됐을 겁니다. 피로울까요? 육신의 피곤을 초월하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더 큰 즐거움입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즐거움은 끝도 없는데 만날 초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도합시다.

나아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좀더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의 참된 기쁨을 위하여 요청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이나 또 우리 이웃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회개합니다. 여기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이 어두운 때에 세상의 빛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